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 및 중재에 관한 연구 : 10대 자녀를 둔 모를 중심으로

A study on mothers' view and mediating behavior of paternal
grandparents-grandchildren relationship

덕성여대 가정학과
조교수 서 동 인

Dept. of Home Economics, DukS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 Dong-In, Suh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IV. 연구결과의 해석 및 논의
II. 선행연구의 고찰	V. 요 약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Mothers' view and mediating behavior of paternal grandparents-grandchildren is explored by using data of 159 mothers who have children at teens. The analysis indicates as below.

1. Mothers highly expect the roles of grandparents such as teaching values and family historians, role models for good life, influencing on the developing of self-identity of grandchildren. However mothers want grandparents keep distance from the lives of grandchildren. This may be double messages to grandparents that they may find it uneasy to accommodate.

2. Grandchildren's role is expected very positively by mothers.

3. Mothers' mediating level of paternal grandparents-grandchildren relations is neutral and a little bit positive on the whole. Mothers's mediating behavior between grandfathers-grandchildren is associated with mothers' view on the importance of grandfathers in the lives of grandchildren and residence pattern. Mothers' mediating behavior between grandmothers-grandchildren is associated with mothers' view on the importance of grandmothers in the lives of grandchildren, grandchildren's role, the

intimacy between mothers and grandmothers and residence pattern.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 평균기대 수명의 확장은 가족관계의 역동성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즉 동시에 가족 안에서 여러 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적인 주기가 길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과연 여러세대로 구성된 가족원들이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가느냐, 또는 세대간의 갈등이 점차로 증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간에서 서로의 관심이 줄어들어 확대가족의 결속력이 감소되어 가느냐, 등등에 대한 탐색이 가족관계학의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애정 깊은 관계는 손자녀의 전 인생주기에 걸쳐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고, 조부모에게는 손자녀를 통하여 생의 연속성을 느끼고 손자녀에게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감을 갖게되어 노년기의 통합이라는 발달과업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두 세대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상호간에 미칠수 있는 것은 가족안에서 조부모가 주변적인 인물로 존재하기 보다는 손자녀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손자녀 생활에 조부모가 접근할수 있는 정도는 중간세대인 부모에 의하여 중재되고 있고 (Denham & Smith, 1989; Robertson, 1976), 또한 손자들은 부모가 조부모에 대하여 갖는 태도, 특히 조부모에 대한 모의 태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박의순, 1990; 서동인, 1991)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서로가 각 세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부각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조부모-손자녀관계는 중간세대인 부모가 중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르게 된다. 즉 부모세대가 조부모-손자녀의 역할 및 이 두 세대가 상호적으로 미치

는 발달적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기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손자녀입장이나 조부모의 관점을 밝히려는 시도만 있었을 뿐 부모세대의 관점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0대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관점 및 기대가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0대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손자녀가 어릴 때는 조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나 10세 이후에는 손자녀편에서 가족밖의 인간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조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연구(Kahna and Kahna, 1970)를 고려하였고, 또한 손자녀가 점차로 성인기로 진입하게 되면 조부모의 영향력은 감소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에서는 10대라는 시기가 학교생활과 공부에 전념하는 기간이므로 조부모-손자녀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영향력이 다른 주기에서 보다 비교적 클것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친조부모와 손자녀관계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본질은 차이가 있어(서동인, 1991) 두 관계선을 구명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정한 관계선으로 제한할 때 조부모-손자녀관계의 본질이 좀 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친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모(며느리)의 관점을 밝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조부역할과 친조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친조부,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에 관한 모의 기대를 알아보려고 한다.

셋째,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를 파악하고, 관련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조부모의 역할 및 손자녀의 역할

우리의 가족문화에서는 조부모역할이 비정형적 역할이라고 규정지워진 서구와는 다르게 조모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역할 내용이 있고 실제로도 손자녀에게 조모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조석미(1981)는 노인들이 조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감 및 영향력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가져 이는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서동인(1991)은 국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조모의 역할 수행의 내용과 수준을 친조모·외조모 여부에 따라 밝힘으로써 우리의 조모역할은 조모라는 지위와 함께 행동 특성도 동반되는 규범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결론짓는다. 그의 연구에서 조모의 기능은 훈계자역할, 물질적제공자역할, 대리모역할, 가계역사전수자역할, 손자녀 지지자역할, 생활간섭자역할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훈계자역할의 수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조모·외조모에 따라 조모역할 기대가 달라 친조모에게는 훈계자역할이 외조모에게는 대리모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미국의 5세에서 18세까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Kornhaber and Woodward(1985)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유대관계가 긴밀한 일부 대상들에서 조부모의 역할 내용은 문화적인 의미와 가족 역사를 제공하는 역사가의 역할, 생활의 기초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하고 또한 손자녀의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케 하는 훈육자의 역할, 손자녀에게 노화과정, 미래의 가족관계와 조부모역할을 보이는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 손자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상력을 제공하는 마술사의 역할, 그리고 대리모역할로 나타났다.

10대 손자녀를 가진 조부모를 상대로 한 Cherlin and Furstenberg(1985)의 연구는 두 세대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거나 서로 심부름을 해 주거나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등의 서비스의 교환과, 조부모가 손자녀의 훈육에 참여하고 손자녀의 문제를 같

이 토론하는 등 충고자로서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조부모역할 내용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손자녀의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조부모의 역할내용은 다른 많은 연구들(Kivnick, 1983; Robertson, 1976; Neugarten and Weinstein, 1964)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부모역할 내용에 Bengtson(1985)과 Troll(1983)은 조부모의 상징적 의미를 더 첨가하고 있다. 조부모가 생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을 위기에서 지탱하게끔 충격흡수의 기능을 한다거나, 평상시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이나 필요할 때는 주변적인 역할에서 중심적인 역할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조부모의 상징적인 역할은 질문지나 면담에 의해서 포착되는 정도 이상의 중요성을 띤다고 한다(Denham & Smith, 1989).

2.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부모의 중재

조부모-손자녀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간접적인 관계, 즉 양 세대간에 위치하는 부모 세대에 의하여 중재되고 있다. 손자녀들과 조모와의 친밀도는 조모에 대한 모의 태도에 의하여 크게 설명되고 있고(김연수, 1993; 서동인, 1991), 모가 손자녀의 아동기 동안 조부모와 함께 갖도록 하는 시간의 양이 아동기 이후의 조부모-손자녀관계 유형에 영향을 준다(Matthews and Sprey, 1985). 또한 조부모들은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손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인 부모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부모세대가 손자녀를 지도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일임하는 것으로(Cherlin and Furstenberg, 1985) 나타나 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 부모세대의 중재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 모가 힘을 행사한다면, 과연 우리의 현대가족에서 손자녀가 조부모와 시간을 함께 하도록 모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의 중재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대행동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모의 관점은 조부모역할과 손자녀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및 손자녀에게 있어 조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모의 관심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조부모의 존재가 손자녀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모가 생각할수록 모는 적극적으로 손자녀에게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도록 권장하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모와 조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가 모의 중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부모-손자녀관계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Johnson, 1983) 있으므로 조부모가 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 동거여부, 조부모의 건강이 조부모-손자녀 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10대 자녀를 둔 모로서 자녀의 친조부모 또는 친조모가 생존하신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강남, 강북, 강서지역의 중학교 1,2학년의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100명을 통하여 편의표집을 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8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첫자녀가 10대를 넘은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159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친조부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내용은 107부가, 친조모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자료는 147부가 분석되었는데 이는 자녀들의 친조부와 친조모가 함께 생존하는 경우와 친조부 혹은 친조모만 생존하는 경우 등 대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는 SAS-PC로 분석 처리되었으며 질문지의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합치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모와 모 자신의 조부모와의 관계,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상호적인 역할기대 및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친조부모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심,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을 밝히기 위하여 기초통계를 사용하였다. 모의 중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척도의 구성

1) 조부모의 역할 및 손자녀 역할에 관한 모의 기대

조부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학동기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조모의 실제 수행차원에 초점을 둔 척도(서동인, 1991)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ennedy(199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손자녀가 10대라는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차원에서 보여질 수 있는 조부모역할은 물론상징적 역할내용도 포함한 척도를 연구자가 작성하였다.¹⁾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26문항에 대한 응답을 요인 분석한 결과 조부모역할기대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 제시자역할(6문항, Cronbach $\alpha = .724$), 심리적 지지자 및 가족의 해결사역할(5문항, Cronbach $\alpha = .724$), 손자녀로부터 먼 무간섭자역할(5문항, Cronbach $\alpha = .623$), 권위자역할(2문항, Cronbach $\alpha = .594$), 적극적인 참여자역할(4문항, Cronbach $\alpha = .600$)로 총 21 문항이다.

조모역할기대 척도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권위자역할(6문항, Cronbach $\alpha = .798$), 심리적지지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7문항, Cronbach $\alpha = .800$), 적극적인 참여자역할(4문항, Cronbach $\alpha = .647$), 먼거리의 무간섭자역할(4문항, Cronbach $\alpha = .599$)로 총 21문항의 5점

1) 본 연구는 10대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하여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자료 중 친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을 밝힌 자료 일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친조부, 친조모, 손자녀 역할 기대의 척도 구성은 친조부모·외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모의 관점을 밝힌 전체 자료의 응답을 요인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리커트 척도이다.

조부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 척도는 Kennedy (1990)의 연구와 본 조사의 예비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의 총 11분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구체적 도움제공 및 지지자역할(9분항, Cronbach $\alpha = .864$)과 조부모를 따르는 추종자역할(2분항, Cronbach $\alpha = .735$)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2)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은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모가 손자녀에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가의 정도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7점 리커트척도의 3분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674$ 이다.

3) 조부모(시부모)와 모(며느리)와의 친밀도

Bengtson(1982)의 긍정적인 정서 지표(Positive Affective Index)를 변안하여 조부모(시부모)와 모(며느리)와의 친밀도를 측정하였다. 모가 조부모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는가, 조부모와 어느 정도 인생관이 유사한가, 조부모가 모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가의 5점 리커트 척도의 3분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부와 모의 친밀도는 Cronbach $\alpha = .736$, 조모와 모의 친밀도는 Cronbach $\alpha = .841$ 이다.

4)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

'만약에 조부모가 안 계신다면 손자녀들은 많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의 한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모가 손자녀의 삶에 있어 조부모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와 해석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30대 96명(60.4%), 40대 62명(39%)이다. 이들의 남편 또한 96.2%가 30,40대로 나타났다고, 조부의 연령은 평균 73.0세, 조모의 연령은 평균 69.8세다. 모의 교육수준은 중졸 41명(26.1%), 고졸 84명(53.5%)이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 89명(56.7%), 고졸이상 42명(27.7%)이다. 이 가족의 소득 수준은 남편의 경우 80만원이하 5.8%, 80만원-110만원이하 20.1%, 110만원-170만원이하 36.3%, 170만원-230만원이하 27.3%, 230만원이상 14.3%이고, 부인의 67.3%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대상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분포로 볼때 본 연구는 서울의 중류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수는 1명 6.3%, 2명, 75.9%, 3명 13.3% 4명이상이 4.4%이다. 친조부 혹은 친조모, 모, 손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은 대상의 18.7%이다

본 연구의 응답자인 모와 모자신의 조부모, 그리고 자녀와 조부모(모의 시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가 성장기간 동안 친조부모와 함께 한 시간이 많았다는 응답은 25.5%, 외조부모 경우는 13.7%이고, 모 자신의 인생에 조부모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응답은 친조부모 76.1%, 외조부모 73.9%이다. 모의 59.2%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시부모를 만나고, 손자녀가 친조부모를 만나는 횟수는 60.0% 이상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이다. 그리고 모는 자신의 자녀와 친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56.7%가 친한것으로 인식한다.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친조부모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으로 '만약에 조부모가 안 계신다면 손자녀들은 많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에 친조부의 경우, 그렇지 않은 편이다 27.2%, 중립적인 응답에 35.9%, 그렇다에 36.9%이고 친조모의 경우는 18.3%, 33.8%, 47.9%이다. 친조부보다는 친조모가 손자녀에게 더 많은 중요한 것을 주는 존재라고 모가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1: 친조부와 친조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조부역할기대 척도는 5점 척도이므로 4.5이상은 강한 긍정적인 기대, 3.5이상에서 4.5이하까지는 긍정

적인 기대, 3.5이하에서 3점까지는 중립적인 기대, 그리고 그 이하는 부정적인 기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에서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역할내용과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에서는 손자녀가 직업을

〈표 1〉 친조부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평 균	표준편차
1.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4.45	1.03
2. 여러분이 원하는 할아버지는 당신에게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분이다	3.72	1.41
3.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가 종교나 도움을 필요할 때 손자녀를 도와야 한다	3.92	1.33
4.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자신의 근원인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셔야 한다.	4.23	1.10
5.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비롯없이 할 때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	3.96	1.31
6. 손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할아버지가 좋은 역할모델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3.17	1.40
7.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 즐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자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3.07	1.44
8. 부모인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3.26	1.49
9. 좋은 할아버지란 집안에 문제가 생기 혼란스러울 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3.46	1.47
10. 손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때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3.69	1.28
11.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3.65	1.38
12. 할아버지는 손자녀들과 지대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2.45	1.20
13. 부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 데 할아버지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호화)	2.79	1.39
14. 이상적인 할아버지란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 주시는 분이시다(재부호화)	2.33	1.42
15. 할아버지란 손자녀를 돕기에는 너무 무식이라고 생각한다(재부호화).	2.57	1.33
16. 좋은 할아버지란 가족내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3.79	1.27
17. 좋은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손자녀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기를 원한다.	4.21	1.12
18. 좋은 할아버지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돕는 분이시다.	2.99	1.43
19.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기쁨어 주시는 분이다.	2.96	1.28
20. 이상적인 할아버지는 손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다.	2.23	1.20
21. 좋은 할아버지란 존경받기를 원하는 노인이라기 보다는 좀 더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4.10	1.13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 : 1, 2, 3, 4, 5, 6.

권위자역할 : 16, 17.

심리적 지지자 및 가족의 해결자역할 : 7, 8, 9, 10, 11.

적극적인 권여자역할 : 18, 19, 20, 21.

번거리의 무간섭자역할 : 12, 13, 14, 15.

선택할 때 조부가 좋은 역할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문항(M=3.17)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5문항에서 긍정적인 기대 수준이다. 조부가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고(M=4.45), 손자녀의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를(M=4.23), 그리고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M=3.72)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손자녀가 필요로 할 때 조부가 충고나 도움을 주기를(M=3.92), 또한 손자녀에게 훈육자의 역할(M=3.96)도 수행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둘째, 손자녀의 심리적 지지자 및 가족의 해결사역할에서는 첫번째 영역의 기대수준 보다는 낮다. 모는 조부가 손자녀에게 심리적 지지자역할(M=3.69, M=3.65)을 긍정적으로 기대는 하나, 손자녀와 조부가 함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즐기기를 기대한다든가(M=3.07) 혹은 조부가 가족안에서의 해결사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는(M=3.46) 중립적인 기대수준을 보인다. 셋째, 무간섭자역할에서는 전 문항에서 3점 이하로 부정적인 기대를 보여 조부가 손자녀의 생활이나 손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먼거리에서 지켜만 봐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3 영역의 문항들의 평균값은 재 부화되어 계산되었음). 넷째, 권위자역할에서는 조부가 자신의 존재 자체로도 손자녀에 힘이 되고(M=4.21) 가족 내에서도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기를(M=3.79) 모가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적극적인 관여자역할은 조부가 존경받기를 원한다기 보다는 좀 더 허물없이 대할수 있는 분이기(M=4.10)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반면 손자녀 양육(M=2.99), 집안일(M=2.96)이나 손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M=2.23) 등의 적극적인 관여자로서의 역할은 부정적인 기대수준이다.

이상에서 10대 자녀를 둔 모가 친조부에게 바라는 조부역할기대 내용은 손자녀에게 조부가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 제시자의 역할을 높게 기대하는 반면 실제로 조부가 손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인 관여자가 된다거나, 많은 시간을 손자녀와 함께하는 역할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손자녀의 연령이 10대라

는, 손자녀의 발달적인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추론된다. 10대의 손자녀는 이미 유아기나 아동기와는 다르게 성인의 수단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동시에 10대라는 시기에서는 삶의 방향이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조부가 손자녀나 모생활에 적극적인 관여는 하지 않으면서도 손자녀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손자녀가 필요할 때는 항상 심리적인 지지자역할을 하고 손자녀의 삶의 근원이 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를 모가 기대한다는 결과는 조부에게는 상당히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고려된다. 따라서 조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의 기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친조부역할기대의 하위영역의 평균값은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은 평균 3.91, 심리적지지자 및 가족의 해결사역할 2.73, 무간섭자역할 2.54, 권위자역할 4.00, 적극적인 관여자역할 3.07로 나타나 위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경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표 2〉에서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역할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권위자역할에서 훈육자의 역할(M=4.13),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M=3.90), 존재 자체로도 손자녀에게 힘이 되기를(M=3.92)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모가 가족내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거나(M=3.13), 손자녀가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거나(M=3.49), 집안의 문제가 생길 때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M=3.22) 기대하는 수준은 중립적이다. 손자녀에게 심리적 지지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에서는 조모가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주기를(M=4.12), 손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M=3.63), 손자녀가 필요로 할 때 충고나 도움을 주며(M=3.85) 심리적인 지지자가 되기를(M=3.62)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조모가 손자녀의 직업선택에서 좋은 모델이 되기를(M=3.04) 기대하는 것은 중립적인 수준이다. 적극적인 관여자역할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기대수준으로 집안일(M=2.89), 손자녀 양육을 돕거나(M=2.89), 경제적 지원(M=2.18) 및 손자녀를 자

〈표 2〉 친조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평 균	표준표차
1. 좋은 할머니란 가족내에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분이다.	3.13	1.37
2.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자신의 근원인 뿌리의식을 갖는데 많은 영향을 주시는 분이다.	3.49	1.29
3. 좋은 할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손자녀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다.	3.92	1.26
4. 좋은 할머니란 집안에 문제가 생기 혼란스러울 때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3.32	1.29
5.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비롯없이 큰 때 그냥 놔두지 않는 분이여야 한다.	4.13	1.19
6. 여러분이 원하는 할머니는 당신에게 가족의 전통, 가풍, 가문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분이다.	3.90	1.21
7. 손자녀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할머니가 좋은 역할모델(본보기)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3.04	1.29
8.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에게 행동이나 가치관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4.12	1.03
9.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가 충고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자녀를 도와야 한다.	3.85	1.07
10. 손자녀를 이해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때 할머니가 손자녀를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3.62	1.24
11.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를 사랑하고 자주 찾아 주시고 즐겨 함께 시간을 가지고 손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다.	3.63	1.24
12. 할머니란 손자녀가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3.46	1.29
13. 부모인 여러분과 당신의 자녀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할머니가 중간에서 이 두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3.49	1.26
14. 이상적인 할머니는 집안일을 기들어 주시는 분이다.	2.89	1.42
15. 이상적인 할머니는 손자녀에게 용돈이나 선물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다.	2.18	1.17
16. 좋은 할머니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돕는 분이다.	2.89	1.42
17. 좋은 할머니는 손자녀를 자신의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 경제적·심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다.	2.27	1.31
18. 이상적인 할머니란 손자녀가 하는 일을 지켜만 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재부화화).	2.62	1.30
19. 부모가 손자녀를 지도하는 데 할머니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화화).	2.82	1.30
20. 할머니는 손자녀를 돕기에는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한다(재부화화).	2.69	1.27
21. 할머니는 손자녀들과 지내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부화화).	2.69	1.23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권위적역할 : 1, 2, 3, 4, 5, 6. 먼거리의 무간섭자역할 : 18, 19, 20, 21

심리적 지지자 및 삶의 방향 제시자역할 : 7, 8, 9, 10, 11, 12, 13.

적극적인 관여자역할 : 14, 15, 16, 17.

신의 미래의 희망으로 여겨 경제적·심리적으로 투자하기를(M=2.27) 기대하지 않는다. 먼거리의 무간섭자역할에서도 조모가 손자녀를 돕기에는 구식이고(M=2.69), 손자녀들과 지내기 보다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과 지내기를(M=2.69), 모가 손자녀를 지도하

는 데에 간섭하지 않고(M=2.82) 지켜만 봐주기를 기대한다(M=2.62)(재부화화된 4문항의 평균값임).

친조모역할기대의 하위영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키는 권위자역할이 3.65, 심리적 지지자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 3.60, 적극적인

관여자역할 2.56, 무간섭자역할 2.56이다.

이와 같이 친조모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는 손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훈육자의 역할, 가족 역사의 전수자역할, 행동이나 가치관에서의 본보기역할, 손자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과 충고를 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에서만 긍정적인 기대 수준을 보이고 그 이외에 적극적인 관여자역할 및 가까이서 간섭하는 역할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의 조부역할 기대에서와 같이 10대 손자녀의 발달 과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한편, 조부모의 역할도 성별에 따른 분화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위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친조모의 역할기대 수준이 친조부의 역할기대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를 여러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10대의 손자녀에게는 발달주기의 특성상 필요한 조부모의 역할이 가족의 근원을 인식시켜주는 역할 및 삶의 방향제시자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역할은 조모보다는 조부에게 더욱 더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기대라는 해석이다. 우리의 가족에서 조부보다는 조모가 가족생활이라는 실체면에서 중심이 되는 존재이긴 하나 가족생활의 기본적인 방향은 조부에 의하여 영위되는 거부장적인 특성을 여전히 갖는데, 이러한 특성이 10대의 손자녀의 발달과업과 관

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둘째로, 조모가 조부보다는 가족의 중심적인 지위(김재은, 1974)를 차지하며 조부보다는 조모가 더욱 더 손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박의순, 1990; Roberto and Stroes, 1992)때문에, 즉 실제의 상황에서는 이미 조모가 조부보다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모가 기대하는 조모역할 수준이 낮게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조모는 조부와는 달리 이미 손자녀나 모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 모가 갖을 수 있는 조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배제할 수 없겠다.

3. 연구문제 2 : 친조부와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 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와 친조모에 대한 10대 손자녀역할은 모든 항목에서 3.5 이상으로 긍정적인 기대 수준을 보인다. 친조부에 대한 손자녀역할 가운데 4.5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은 친조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M=4.65), 조부가 필요로 할 때 도와드리는 역할(M=4.67), 편찮으실 때 간호해드리거나 보살펴 드리는 역할(M=4.53), 조부 말씀을 잘 경청하는 역할(M=4.51)이다.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은 친조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M=4.63), 친조모

〈표 3〉 친조부, 친조모에대한 손자녀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

	친 조 부	친 조 모
1. 손자녀는 조부모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 드려야 한다.	4.67(0.63)	4.61(0.72)
2. 손자녀는 조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리거나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	4.53(0.76)	4.43(0.93)
3. 손자녀는 조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여야 한다.	4.51(0.85)	4.45(0.86)
4. 손자녀는 조부모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4.65(0.69)	4.63(0.73)
5. 손자녀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부모님을 자주 찾아 봐야 한다.	4.19(0.97)	4.15(1.04)
6. 손자녀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보하거나 시간을 같이 하는 활동을 가져야 한다.	4.03(0.98)	4.01(1.02)
7. 손자녀는 조부모께서 심심해 하실 때 옆에서 친구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3.89(1.13)	3.84(1.17)
8. 손자녀는 조부모님에게 현대적인 사고와 활동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88(1.04)	3.87(1.08)
9. 손자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조부모님께 말씀드려 아시게 하여야 한다.	3.70(1.01)	3.69(1.07)
10. 손자녀는 조부모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3.55(1.18)	3.61(1.15)
11. 손자녀는 조부모님이 하시는 가풍, 전통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7(1.07)	3.96(1.05)

구체적 도움 제공 및 지지자역할 : 1, 2, 3, 4, 5, 6, 7, 8, 9 조부모를 추종자하는 역할 : 10, 11

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M=4.61$)이 매우 높은 기대수준으로 나타났다. 모가 기대하는 손자녀역할의 하위 영역별 평균은 구체적 도움제공 및 지지자역할은 친조부 4.22, 친조모 4.18이고, 조부모의 추종자 역할은 친조부 3.76, 친조모 3.79이다. 두 영역 모두 다 긍정적인 기대수준을 보이나 조부모가 필요할 때 도와드리거나 지지를 하는 손자녀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가 조부모의 방향제시에 추종하는 손자녀역할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연구문제 3: 친조부,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과 관련변수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 척도는 각 문항 평균이 4.17-5.44 사이에 있고, 3문항을 합한 전체 점수는(3에서 21까지의 범위를 가짐) 친조부-손자녀관계가 평균 13.34($SD=3.77$), 친조모-손자녀관계는 평균 13.13($SD=4.19$)이다. 손자녀에게 친조부, 친조모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모의 중재는 중립적인 수준을 넘어 약간 적극적인 경향을 띤다고 하겠다. 친조부,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친조부와 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수준은 조부와 동거하는 경우($b=-.352^*$, $\beta=-.229$),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모가 여길수록($b=-.785^*$, $\beta=-.284$) 적극적으로 손자녀에게 조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수준은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b=-.276^*$, $\beta=-.167$), 손자녀역할을 모가 기대할수록($b=.126^*$, $\beta=.215$),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모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모가 생각할수록($b=1.085^{***}$, $\beta=.350$), 모와 조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b=.232^*$, $\beta=.160$) 적극적으로 손자녀에게 조모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수준의 모델이 친조부의 경우보다 더욱 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족에서 차지하는 조부와 조모의 존

<표 4-1> 친조부-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에 관련된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중재 행동	모의 연령	모의 교육	가족 소득	동거 여부	조부 건강	조부의 경제 의존도	조부역할 기대	손자녀 역할 기대	조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모와 조부와의 친밀도
중재 행동	1.000										
모의 연령	.013	1.000									
모의 교육	.064	.196	1.000								
가족 소득	.081	.104	.401	1.000							
동거 여부	-.221	.027	.101	-.028	1.000						
조부 건강	.006	-.021	.137	.100	.377	1.000					
조부의 경제의존도	-.154	.195	.098	.216	.006	.185	1.000				
조부역할 기대	.319	.046	.135	-.000	-.122	.077	.218	1.000			
손자녀역할 기대	.354	-.068	.052	-.042	-.052	-.235	-.080	.513	1.000		
조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361	-.189	.028	.051	.045	.050	.280	.550	.367	1.000	
모와 조부와의 친밀도	.147	-.108	-.050	.001	.109	.029	-.224	.257	.103	.440	1.000

〈표 4-2〉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에 관련된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중재 행동	모의 연령	모의 교육	가족 소득	동거 여부	조모 건강	조모의 경제 의존도	조모 역할	손자녀 역할	조모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조모와의 친밀도
중재 행동	1.000										
모의 연령	-.102	1.000									
모의 교육	.105	.160	1.000								
가족 소득	.115	-.014	.340	1.000							
동거 여부	-.271	.037	-.140	-.023	1.000						
조모 건강	.074	.119	.302	.180	-.046	1.000					
조모의 경제 의존도	-.082	.128	.088	.157	-.128	-.002	1.000				
조모 역할	.477	-.088	.136	.060	-.223	.127	-.077	1.000			
손자녀역할	.444	-.115	.042	-.001	-.101	-.038	-.136	.563	1.000		
조모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530	-.070	.056	.178	-.226	.197	-.020	.589	.347	1.000	
조모와의 친밀도	.340	-.069	-.055	-.047	.018	.063	-.207	.323	.122	.300	1.000

〈표 5〉 친조부,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행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

독립 변수	친조부-손자녀관계		독립 변수	친조모-손자녀관계	
	b	β		b	β
모의 연령	.093	.084	모의 연령	-.031	-.029
모의 교육수준	-.132	-.036	모의 교육수준	-.082	-.018
가족소득	.065	.050	가족소득	.108	.068
조부와와의 동거	-.352*	-.229	조모와의 동거	-.276*	-.167
조부의 건강상태	-.240	-.079	조모의 건강상태	.121	.032
조부의 경제의존도	-.065	-.018	조모의 경제의존도	.007	.002
조부역할기대 ²⁾	-.007	-.026	조모역할기대 ²⁾	.009	.030
손자녀역할기대 ³⁾	.128	.230	손자녀역할기대 ³⁾	.126*	.215
조부 중요성에 대한 관점	.785*	.284	조모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	1.085***	.350
모와 조부와의 친밀도	.027	.017	모와 조모와의 친밀도	.232*	.160
R ²	.232**		R ²	.402***	
상 수	4.503		상 수	3.478	
N	100		N	135	

* p < .05 ** p < .01 *** p < .001

2) 조부역할기대와 조모역할기대는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분석에서 모의 중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체 점수로 합하였음.

3) 손자녀역할기대는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에 포함시킨 분석에서 조부모에 대한 추종자역할기대보다는 구체적 도움제공 및 심리적 지지자 역할기대가 모의 중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조부는 조모보다 먼 거리에 위치하나 집안의 이 큰으로서 상징적인 커다란 권위를 가지므로 모와 조부사이의 친밀한 수준이나, 조부모-손자녀관계에 관한 모의 관점이 어떠한 관계없이 하나의 의무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친조부와와의 관계에서는 외조부와와의 관계와는 다르게 더욱 그러한 경향을 띠리라고 본다.

반면, 조모는 가족생활에서 조부보다는 중심적인 존재로서 실제생활에 관여 정도가 높으므로, 모가 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 그리고 조모와 모사이의 친밀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가 실제로 친조모-손자녀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친조부역할기대나 친조모역할기대가 모의 중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손자녀역할기대가 유의한 영향변수로 나타난 것은, 조부모역할보다는 손자녀역할이 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분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될 수 있다. 모가 기대하는 조부모역할기대가 높다하더라도 실제로 조부모가 이 역할들을 수행하느냐의 여부는 모의 통제 밖에 있는 반면에 손자녀역할은 모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모의 손자녀역할기대가 높을수록 모가 손자녀에게 친조모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시에 윗세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랫세대로서의 의무감이 세대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친조부,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수준에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조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모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세대과정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가 서로 상호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 및 그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고 본다.

V. 요약

한 가족안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세대간의 상호작용이 조화로운 유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대에 대한 관심을 밝힐 필요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모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친조부모-손자녀관계에 대한 관심 및 이 관계에 대한 중재수준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 친조모역할은 인생의 근원 및 삶의 방향제시역할에서 높다. 그러나 모는 친조부, 친조모가 손자녀생활에 적극적인 관여자가 된다가나 많은 시간을 손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친조부, 친조모가 손자녀로부터 멀리 존재하면서 그러나 손자녀에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심리적인 지지역할을 하고 삶의 근원이 되는 방향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모가 원한다. 이러한 모의 기대에 친조부모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는 모가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조부역할기대 수준이 친조모역할기대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뿌리의식이나 삶의 방향을 찾는 10대 손자녀의 발달과업은 친조부역할과 더욱 관련이 있고, 가족생활에서의 친조부와 친조모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겠다.

둘째, 모가 기대하는 친조부, 친조모에 대한 손자녀역할기대는 매우 긍정적인 수준을 보인다. 친조부, 친조모에게 손자녀가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 지지하는 역할에 대한 모의 기대가 조부모의 방향제시에 추종하는 손자녀역할을 기대하는 수준보다 높다.

셋째, 친조부,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는, 모가 손자녀에게 조부모와 상호작용을 갖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 중립적인 수준을 넘어 약간 적극적인 경향을 띤다. 친조부-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는 친조부와 동기하는 경우,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친조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모가 여길수록, 손자녀에게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조모-손자녀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는 친조모와 동기하는 경우, 친조모가 손자녀의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고 모가 여길수록, 손자녀역할기대가 높을수록, 조모와 모가 친밀할수록, 적극적이다. 여기에서 친조부, 친조모역할기대보다는 손자녀역할기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친조부모역할은 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록 모의 기대가 높다하더라도 이 역할의 수행여부는 조부모에게 달려있어 모의 중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윗세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랫세대로서의 의무감이 세대간의 상호작용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친조부-손자녀 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를 설명하는 모델이 친조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모의 중재모델보다 설명력이 낮은 결과는 조부는 조모보다 가족생활에 덜 관여하면서도 상징적인 권위를 가지는, 모(며느리)입장에서는 하나의 의무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 문인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친조부모와 손자녀관계에 관한 모의 관점 및 중재의 양상을 밝히려는 첫번째의 시도으로써 친조부모-손자녀 관계를 중재하는 모의 중재행동을 단면적으로만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에서 밝혀진 결과도 앞으로 재검증이 필요한 잠정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친조부모-손자녀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 관점 및 모의 중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힌 연구결과는 앞으로 삼세대 가족원간의 역동을 이해하는 연구들을 만드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삼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연수(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사.

3)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백분화·조병은(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동기와 비동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2), 219-236.
5) 서동인(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조석미(1981).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 대구시 중류층 노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Bengtson, V.L. and Schrader, S.S.(1982). Parents-child relations. In D. Mangen & W. Peterson (Eds). Social roles and social participation(pp 115-185)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8) Bengtson, V.L.(1985). Diversity and Symbolism in Grandparental Roles. In V.L. Bengtson and J.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12-25.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9) Cherlin, A.J. and Furstenberg, Jr.(1985). Styles and Strategies of Grandparenting. In V.L. Bengtson and J.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92-116.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0) Denham, T.E. & Smith C.W.(1989).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on Grandchildre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ources. Family Relations, 38, 345-350.
11) Hagestad, G.O.(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V.L. Bengtson and J.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31-48.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Inc.
12) Hartshorne, T.S. and Manaster, G.J.(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 223-245.
13) Johnson, C.L.(1983). A Cultral Analysis of the Grandmother. Research on Aging, 5, 547-568.
14) Judson, J.S.(1985). Older Grandparents' Perception of Generativity in the Grandparent-Grand-

- child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15) Kahna, E. and Kahna, B.(1970). Grandparen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Grand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3, 98-105.
 - 16) Kennedy, G.E.(1990). College students's expectations of grandparent and grandchild role behaviors. *The Gerontologist*, 30, 43-48.
 - 17) Kivnick, H.Q.(1982). Grandparenthood : Overview of meaning and mental health. *Gerontologist*, 22, 59-66.
 - 18) —————(1983). Dimensions of grandparenthood meaning : Deductive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de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56-1068.
 - 19) Kornhaber, A. and Woodward, K.L.(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 Anchor Press/Douleday.
 - 20) —————(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V.L. Bengtson and F.F.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159-171.
 - 21) Matthews, S. and Sprey, J.(1985).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 621-626.
 - 22) Neugarten, B.J. and Weinstein, K.(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6, 199-204.
 - 23) Presser, H.B.(1989). Some economic complexities of child care provided by grand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81-591.
 - 24) Robertson, J.F.(1976).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 Perception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137-140.
 - 25) Roberto, K.A. and Stroes, J.(1992).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 Roles,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and Human Development*, 34(3) 227-239.
 - 26) Tinsley, B.R., & Parke, R.D.(1984). Grandparents as support and socialization agents. In M. Lewis (Ed.), *Beyond the dyad*, 161-194. New York : Plenum Press.
 - 27) Troll, L.E.(1983). Grandparents : The family watchdog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 Sage.